

일반논문

은유로서의 ‘종3(鐘三)’, 이동하는 ‘박카스 아줌마’: 서울 종로 3가 성매매 공간의 정치학*

이희영**

〈국문초록〉

이 연구는 성매매 지역으로 알려진 ‘종로 3가’에 대한 언론의 담론을 분석하고 사회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1950년대 이후 ‘종3’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혐오 발화와 사회적 ‘추방’을 토대로 구성된다. 종3은 1950-60년대 성매매 ‘특정지역’에서 현재 50-70대 여성의 ‘거리 성매매’ 지역으로 변화했다. 전후 여성 혐오의 쾌락을 공유했던 ‘종삼동서들’이라는 남성 집단이 노년이 되어 젠더 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이 종3이다. 성매매 방지법 제정 후 ‘박카스 아줌마’는 전적으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2018년 재발화된 여성운동의 관심에서도 벗어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종3은 성매매 정책의 실패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이다.

주제어: 종로 3가, 여성혐오, 담론분석, 박카스 아줌마, 성매매 정책

* 이 연구는 2018년도 대구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biograf@daegu.ac.kr)

© 2020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시작하는 말: 언론 속의 ‘종3’

현재 한국 사회에서 ‘종3’은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질까? 형식적으로 서울시 종로구 3가 지역의 약칭인 ‘종3’은 오래된 성매매 지역으로 통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노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언론에서는 사회적 계기가 생기면 이곳을 취재하여 성판매자인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왔다. 이런 분절적인 시선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종3’은 한국전쟁 후 최대 규모의 ‘사창’으로 언급되다가 1968년 대표적인 첩거지역이 되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종3’이 새롭게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쟁, 경제개발, IMF 경제 위기 등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 속에서 ‘종3’이 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와 계급 그리고 젠더가 어떻게 교차하며 ‘종3’을 재현하고 생산하는지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의 종로 3가 지역에 대한 신문기사 및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시대별 담론의 변화와 특징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로 3가의 약칭으로 쓰이는 ‘종3’이 어떻게 종삼(鐘三)이었던 시절을 거쳐,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소환되는 성매매 공간으로 위치하게 되었을까?!) 둘째, 이 과정에서 (재)생산되는 담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종3’과 ‘박카스 이즘마’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가?

1) 다음에서는 1968년 폐쇄까지는 종삼, 1990년대 이후에는 종3으로 표기한다.

2. 종로3가의 성매매 공간과 여성들

연구자가 종3 지역을 답사한 것은 2020년 1월~2월이다. 2019년 8월 '종3' 여성들에 대한 구술인터뷰를 한 것이 배경이었다. 종3은 광화문으로부터 이어지는 종로 3가 대로 뒤편에 형성된 피맛길과 주위의 음식점, 모텔, 쪽방촌이 어우러진 곳이다. 거리 호객을 통해 50-70대 남녀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가시적'이다. 문화지리학의 관점에서 종3이라는 장소에 이들이 남긴 흔적(traces)은 인정받지 못한 채 주변화 되어 있다(앤더슨, 2013).²⁾ 사회적 공간은 물리 환경적 조건과 정치, 문화적 권력이 작동하면서 특정한 형상과 무형의 질서를 가진 장소로 구성된다. 장소는 젠더화된 권력의 실현방식이자 결과이다(맥도웰, 2010). 개인은 특정한 공간에서 사회적 행위를 매개로 자아를 구성하고 주체화된다. 푸코(Foucault)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곧 담론적 실현의 과정이기도 하다(푸코, 1993). 유행, 치장, 피임, 유혹, 거래, 재산, 성병, 검열 등에 관한 지식을 전유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담론적 권력은 주체와 섹슈얼리티의 양식을 (재)생산하는 것이다(푸코, 2004).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종로 3가 성매매 공간에 대한 시대적 담론의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물리적 공간에 깃든 권력의 지형도를 추적하여 젠더화된 담론의 윤곽과 균열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이다.

종로3가 지역의 성매매 현실에 대한 학술연구로는 2010년대 초반의 선구적 시도(이호선, 2011; 2012; 2014)가 있다. 이 연구들은 노년 빈곤 연구의 관점에서 수행한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종로3가 지역 성매매 여성들의

2) 종로3가는 한국 동성애 문화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2011년 이혁상 감독의 다큐멘터리 <종로의 기적>은 동성애 문화에 대한 커밍아웃이다. 이 글에서는 '박카스 아줌마'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공간에 집중하여 논의할 것이다.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뷰한 여성들의 삶의 경로를 현상학적 분석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여성들의 '언술'을 넘어서 심층 분석이라고 보기 힘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재유입-유희형'에 대해서 "성매매를 취미로 여기며 소일거리라고 생각하여 생계와 무관하게 성매매에 임하여 금전적 소득을 얻는 형태" (이호선, 2011: 497)라고 정리한 시각은 다분히 표면적인 언술에 기초한 유형화로, 구술자료에 대한 사회구조적 이해 및 여성주의적 관점이 부족한 연구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진 연구에서도 여성들의 구술 자체를 사실로 전제하고 접근 목적(신체접촉, 성교, 기타범죄)이나 조직 유무(전업형, 겸업형 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 이런 방식의 연구는 성구매자인 남성을 여성들의 '유도'와 '범죄 목적'의 피해자로 전제하고, 여성들을 가해자로 바라보는 이분법적 시선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자의 의도와 다르게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어진 후속 연구(이호선, 2013)에서는 남성 구매자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남성의 성적 욕망('성 에너지')은 노년이 되어서도 '가두어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성적 욕망은 생물학적 조건에 기초한 '자연적' 본능이 아니다. 생물학적 성(sex), 사회적 성(gender) 및 성적 욕망(sexuality)은 수많은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가능성과 요소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구성된 역사, 문화적 산물이다(Scott, 1999: 214-215; 웨스, 1997: 19). 따라서 남성의 성을 억제할 수 없는 본능으로 전제하는 연구자의 관점은 문제적이다.

다음으로는 종로 3가리는 공간을 사회문화지리적 관점(전종한, 2009) 및 문화연구(오현주·옥은실, 2016)의 시각에서 고찰한 연구가 있다. 전자는 장소 기억의 관점에서 조선전기에 형성된 '피맛골'의 장소성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피맛골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종로2-3가 지역

의 '성매매 공간'에 대한 언급은 '특정 구간에 들어선 색주가'에 대한 몇 줄의 설명에 그치며, 그에 대한 해석 또한 남성적 필요에 의한 '배설의 공간, 망각의 공간'(위의 글, 791)으로 뭉뚱그려질 뿐이다. 결국 연구자가 그려낸 피맛골은 역사의 승자인 남성들의 경험에 근거한 '서발턴의 공간', '탈주의 공간' 혹은 '삶의 공간'에 머물고 있다. 후자의 연구(오현주·옥은실, 2016)는 종로 3가를 탐색하며 '노인들의 아지트 만들기'의 과정인 다양한 하위 문화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의하면 종로 3가는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을 점령한 남성 노인들의 세계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절대적으로 소수인 여성 노인들 대부분은 종로3가역 주변의 골목 사이에서 '코너 소사이어티'를 구축하고 있는 '박카스 할머니'들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종로 3가의 '남성화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추적하고, 그중에서 유일하게 남녀가 공존하는 공간인 '코너 소사이어티'를 '범죄화'하거나, 여성들을 사회적 낙인으로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구는 '코너 소사이어티'를 '노년의 성'이 공공연히 표현되는 곳'이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젊은 사람의 로맨스와 차이가 없다는 식의 '무비판적 시선'에 머물고 만다. 따라서 연구는 '현상 기술'에 치중한 문화연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종로 3가 성매매 공간에 대한 주요 신문 기사 및 문헌자료에서 드러나는 담론의 특성을 분석하고,³⁾ 이것을 국가의 성매매 정책 및 젠더 관계 속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해석학적 사회 연구방법론에 기초하여 수행한 텍스트 분석 및 재구성 과정에서는 과거 사실의 흔적과 그에 대한 '해석'을 분리한다. 나아가 전자를 후자가 '어떻게' 재현하는가를 중층적으로 재구성하여

3)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해 1950-2019년 사이 종로 3가, 종삼, 종3, 박카스 아줌마, 파고다를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사 중 의미 있는 텍스트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된 주요 문헌 자료 또한 분석 대상이다.

연관된 ‘담론의 특징’을 추적할 것이다.⁴⁾ 성매매 집결지는 전형적으로 국가의 정책, 섹슈얼리티, 젠더, 계급, 계층, 경제력, 문화적 차이 등이 교차하며 주변화되고 낙인찍힌 공간이다.⁵⁾ 집결지에 대한 주요 일간지의 기사는 여론을 형성하고 매개하는 주요 장치로서, 해당 시기의 지배 담론을 엿볼 수 있는 텍스트이다. 권력의 핵심인 서울 중심부에 있는 종로 3가의 경우 해방 이후 주요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 한국 사회 ‘종삼’에서 ‘종3’으로: 국가와 언론의 젠더 정치

해방 후 성매매와 관련된 가장 큰 변화는 1948년 공창제의 폐지다. 공창제 폐지령은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열망 속에서 미 군정장관의 인준을 거쳐 1947년 11월 14일 공포되고, 1948년 2월 14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박정미, 2011), ‘공창제폐지령’에는 일제가 만들었던 공창제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창기규칙’만 폐지되었고, 제3호에 해당하는 ‘예기작부규칙’은 폐지되지 않았다. 즉 지정된 곳에서 전업 성매매를 담당했던 창기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식당 등의 업소에서 겸업형 성매매를 하던 예기와 작부에 대한 관리 규정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대신 보건후생부의 「접객부(기생, 작부, 여급) 허가에 관한 건」의 예규에 해당하는 「접객부(기생, 작부, 여급) 영업규례」로 명칭만 변경되었다. 이것은 미군정의 ‘성병 통제’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공창

4) 해석학적 현상학의 전통에 기초한 신문기사와 그 외 문헌에 대한 담론분석법은 다음을 참고하라(Voelter and Rosenthal, 2005). 동일한 이론적 지평 속에서 수행된 사진 분석법에 대한 참고자료는 다음이다(Breckner, 2010).

5) 대표적으로 용산 집결지 여성들의 장소 경험에 관한 연구(김애령, 2016; 이희영, 2014)와 대구 자갈마당에 대한 연구(신진영, 2016)를 참고하라.

제폐지령을 통해 성매매를 금지했으나, 위의 예규를 통해 국가가 성매매로 인한 성병 확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조치를 제도화한 것이다(앞의 글, 66-76).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은 제1공화국 또한 식민지 잔재인 공창제를 폐지하여 근대국가로서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성병의 위협으로부터 미군과 남성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정책'을 유지하였다.

1950년대 한국사회의 성매매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회변동 속에서 폭발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기반의 붕괴로 밀매음이 급속히 늘어났다. 또 한국전쟁 시기 '위안부'제도가 부활하였고⁶⁾, 미군 주둔이 장기화하면서 '기지촌'의 필요가 생겨난 것이다. 전후 생계를 책임지게 된 여성들에게 전쟁 구호물자와 연합군을 상대로 한 각종 서비스 및 성매매가 생계 기반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시경제의 핵심 중 하나이기도 했다. 보건사회부 통계 분석에 의하면 1957년 성매매 형태 중에서 '위안부'와 '미군 동거'에 해당하는 비중이 39.2%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기생, 작부, 여급, 댄서, 하녀 중에서 군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관련되었을 비중을 고려하면 전체 성매매 형태 중 절반에 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임하, 2004: 133). 이런 상황에서 '종삼(鍾三)'은 한국 남성들의 대표적인 성매매 지역으로 알려졌다.

1) 1960년대 경제개발과 '악명 높았던' 종삼의 폐쇄

(1) "사회악(惡)"의 온상지로 지목된 '인육시장' 골목

한국 유곽의 기원과 변천 과정을 추적한 자료에 의하면 1930년대부터 종로 거리에 성매매 업소들이 생기기 시작하여 청계천을 경계로 남쪽에는

6) 한국 정부는 1950년 전쟁이 발생하자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위안부'가 재등장하였다. 이들은 국군과 연합군을 '위안'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동원한 여성들이었다(박정미, 2011: 146-149). 한국군 위안부에 대한 최근 자료는 다음을 참고하라(김귀옥, 2019).

일본인들이, 북쪽에는 조선인들이 단성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일제하에서 전자는 유곽 중심의 공창 지대로, 후자는 밀매음 지대로 유지되다가 해방 후 종로 3가 일대는 일반인들의 '밀매음 공간'이 되었다(홍성철, 2007: 195-197). 그런데 한국전쟁 후 삶의 터전을 잃은 피난민들이 모여들어 빈민가가 형성되면서 1950년대 중반에는 종로 3가 단성사 뒷골목에서 종묘 앞까지 '사창 거리'가 되었다.

1957년 경향신문 2면에 『종삼이란 곳』을 집중 조명한 박스 기사가 실려 있다. 기사의 오른쪽 위 시계 모양의 그림은 1950년대 중반에 시행되고 있던 야간통행 금지⁷⁾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사는 1957년 8월 통행금지가 시작된 시각, '종삼'이라는 공간의 풍경을 그린 것이다. 기사의 사진에는 5명이 등장하는데, 카메라의 시선에서 가장 먼 쪽에 한 여성이 아이를 업은 채 걸어가고, 그 옆으로 가방을 든 여성이 지나고 있다. 흑백 사진 속의 이곳은 건물 사이의 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사진의 전면 벽 쪽으로 짧은 머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양산을 든 여성이 있고, 옆에는 한 남성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 있다. 그런데 남성은 자신을 쳐다보는 여성이 아니라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린 채 서 있다. 상식적으로 시선은 관심과 적극성을 표현한다. 즉 손이 닿을 듯이 가까운 곳에 서서 몸은 여성을 대하고 있으나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림으로써 주변을 의식하는 듯하다. 또 한쪽 귀로만 여성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인다.

7) 미군정이 시작된 직후인 1945년 9월 8일, 밤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통행금지령이 발표되었다. 이후 제도는 단축 혹은 연장되다가 1982년 1월 5일 폐지되었다.

〈그림 1〉



자료: 『경향신문』, 1957.08.04

다음으로 기사 제목은 '종삼이란 곳'이 술을 마신 '탕아'들이 빈번히 단속에 걸리는 장소라고 강조한다. 공창제도가 1948년 폐지되었으나 '헛구호'라고 여겨질 만큼 이곳의 성매매가 공공연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카메라의 시선이 여성의 얼굴은 드러내고, 남성은 뒷모습만 보여주는 것이다. 기사에서 종로 3가 뒷골목은 기원을 알 수 없을 시기로 부터 서종삼이라 불리던 집단 매음가로 정의된다. 이곳의 밤 10시 무렵은 통행금지를 피해 '탕아들'이 '창녀'를 찾아 몰려들고, 유흥을 위한 웃음과 고함 가득한 공간으로 묘사된다. 앞의 사진이 시각적 현실을 가시화한 것이라면, 기사의 글은 청각적 요소를 통해 '매음가'의 생생함을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밤 10시가 지나 통행이 금지된 법적 조건과 남녀의 웃음과 고함이 가득한 골목의 현실이 대비됨으로써 종삼 공간의 '특이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탕아'들의 정체성을 고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 각

계각층에 속하는 남성들로 ‘신사’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술집’에 ‘인육시장’을 찾아온다는 표현이다. 즉 계각층 나이 불문의 남성들이 음주와 함께 ‘사람 몸을 매매하는 곳’이 바로 ‘종삼이란 곳’이다. 이 글을 앞의 사진과 연관해 보면, 기사는 ‘인육’으로 묘사된 여성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지만, 계각층 나이 불문의 남성은 뒷모습만 보여준다. 전자는 단지 몸덩이(人肉)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비록 술 때문에 탕아가 되었으나 보호받을 존재로 재현된 것이다. 특히 나이 어린 남성들을 ‘내일의 일꾼’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대비는 명확해진다. 창녀와 탕아, 몸덩이와 술 취한 계각층의 남성이라는 대비는 여성을 남성 욕망의 사물화된 대상으로 바라보는 1950년대 대중매체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창녀들’은 가난 때문에 고향과 정조를 버린 ‘가련한 몸’이며, 동시에 세균처럼 이 지역을 오염시키는 ‘악의 꽃’으로 묘사된다. 또 ‘우리들’의 ‘환경 정화’와 ‘그들인 창녀들’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요청하고 있다.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해부학적 차이와 의학 지식을 근거로 ‘여성의 몸’을 각종 질병의 근원이자 성병의 진원, 따라서 정화의 대상으로 교육하고 선전해 온 ‘인술’이 재연되고 있다(콘보이 외, 2001: 25-55). 나아가 여성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한탄할 뿐, 이에 대한 국가와 공권력의 역할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전쟁이 끝난 1950년대 한국 정부는 한편으로 공창을 폐지했으나, 미군을 상대로 한 유흥업소 및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묵인하고 성병 검진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였다. 다른 한편 전후의 재건 정책으로 전통을 소환하고 ‘현모양처’를 강조하면서 주기적인 성매매 단속을 실시하였다.⁸⁾ 이것은 전후 범죄와 일탈을 예방하고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8) 1954년에서 1960년 사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게재된 성매매 단속 기사는 총 29건이며, 그 중 서울지역 단속 기사는 18건이다. 특히 종삼이 소속된 봉익동(1회)과 종로서(6회), 동대문서(1회)의 단속 기사도 8회에 이른다(박정미, 2011: 126-127).

경찰력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 도심 한복판의 종삼은 대표적인 단속지역으로, 사회악의 온상이자 '인육시장(人肉市場)'으로 정의되었다. 각종 언론 매체는 이와 같은 성매매 관련 기사들을 통해 전후 젠더 정치의 주요 행위자가 되었다.

(2) 1960년대, 적선(赤線)을 뚫고 주택가로 번진 '범죄지대'

1960년대는 제3 공화국의 새로운 성매매 정책이 시행된 시기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11월 '윤락행위등 방지법(이하 윤방법)'을 제정하고, 윤락행위를 '불특정인에게 금전 등의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⁹⁾ 이를 통해 '성매매 금지'를 재천명한 것인데 이것은 깡패 소탕 등과 함께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홍보되었다. 즉 성매매를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 지나지 않은 1962년 6월 전국 104개소에 윤락행위를 허용하는 '특정지역'을 설치하였다. 특정지역 설치의 어려움과 실효성 문제로 성매매지역과 일반주택가를 분리하고, 보건위생 및 성병관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윤방법을 통해 성매매 금지를 천명했지만, 특정지역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전국 104개 특정지역 중 서울에는 9개를 할당하였는데, 종삼도 그 중의 하나였다.¹⁰⁾ 1960년대 중반 종삼은 “과고다 공원(현 탑골공원)·낙원 시장 주변이 서쪽 끝이었다. 그리고 동으로 뻗어나가 낙원동, 돈의동, 익선동, 윤니동, 와룡동, 훈정동, 원남로, 종로5가까지 동서로 1km가 넘었고 남북으로도 좁은 데는 50m, 넓은 데는 능히 100m나 되었을 것이다. 종로통의 북쪽이 주였지만

9) 이 법은 금지 조항 외에 '윤락여성'의 보호시설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여 복지적 성격을 가미했다(위의 글, 159-163).

10) 104곳 중 기지촌은 32곳이다. 서울에서는 양동, 영등포역, 종로3가, 청량리 등이 특정지역에 포함되었다. 1964년에는 서울의 특정지역이 14곳으로, 전국적으로는 146곳으로 늘어났다(보건의사회부, 1987: 홍성철, 2007: 230-233에서 재인용).

길 건너 남쪽의 관수동, 장사동, 예지동에도 있었다.”(손정목, 2005: 190)

1965년 6월 15일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박스 기사에 ‘넓혀가는 사창가’라는 글이 실렸다. 이때는 박정희 정부가 1962년 8월 특정지역을 설정한 지 3년이 지난 시기이다. 8면의 『서울, 대숙원, 보다 나은 시민생활을 위한 시리즈』에 13번째로 실린 기사로 재건국민운동과 유사한 기획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자료: 『조선일보』, 1965.06.15.

기사는 부제를 통해 서울에 1만여 명의 ‘윤락여성’이 있으며 “적선”을 뚫고 주택가로 확장되는 현실을 고발한다. 이에 의하면 사창은 “서울의 생리에 따르는 필요악”으로 정의된다. 앞의 1950년대 기사와 비교하여 흥미로운 점은 ‘자연화된 성(naturalized sexuality)’의 논리로 성매매의 필요를 인정한 것이다. 즉 남성으로 의인화된 서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사창을 인정함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특정지역 설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동시에 특정지역의 ‘붉은 선’을 넘어서 행해지는 사창의 해악을 지적한다. ‘선도구역’ 내의 윤락여성이 2천7백 명이지만 그 바깥에는 8천여 명이 서울 시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사회악'으로 들고 있다. 특정지역은 '정화'할 수 있는 선도구역으로 부르는 반면, 그 외의 성매매 지역을 '사창굴'이자 '범죄의 온상'으로 구분한 후 사창이 주택가로 확대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이를 통해 국가가 관리하는 '특정지역' 내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이를 벗어난 성매매를 '사회악'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범죄화하고 있다.

기사는 '윤락여성'이 번창하는 가장 큰 이유로 "생활고"를 지적한다. 그러나 기사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들 대부분이 생활고보다는 "마조니즘적인 고질" 때문에 사창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제3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즉 번창하는 사창굴의 고질적인 원인을 성매매 여성들의 '성적인 특성'으로 돌림으로써 이들을 범죄의 주범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통해 쾌락을 느끼는 성적 본질'로 인해 사회적 범죄인 윤락행위를 하는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오래된 '여성혐오(misogyny)'의 시선이다. 중세 유럽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서 학살했던 역사를 거쳐, 근대에서는 남성과 다른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 본질화하는 섹슈얼리티를 (재)구성하였다(콘보이 외, 2001). 이 기사에서 여성들의 성매매를 생활고보다 '마조니즘적인 고질'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시선은 20세기 서구 근대의 이분법적 섹슈얼리티 규범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흥미롭다. 이런 시선은 기사 중간의 사진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 사진 속 네 명의 여성들은 모두 검은색 띠로 눈을 가린 상태인데, 이들이 "50원에 팔리면서도 밤의 꽃"으로 불리는 존재라고 명시하고 있다. 남성들의 성적 도구이면서 밤의 '요화'리는 위치를 즐기는 '마조니즘적' 본질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1960년대 말 종삼은 서울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창가'로 평가되었다(『주간조선』, 1969.12.07).

1967년 영등포와 종로에서 총 200명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연구에 의하면, 80%의 여성이 20~25세에 속하며 73%가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온 여성들이었다. 50% 이상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이하

의 교육 경험을 가졌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은 4%(8명)였다. 이전 직업으로는 전체 56%가 무직이고, 식모, 여공 순으로 전체 15종에 이르는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이들 중 52.5%가 '윤락행위'를 통해 번 돈으로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학력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여성들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장동칠, 1967).

다른 한편 도시 연구의 관점에서 1950-60년대 서울 '종삼'을 기술한 자료는 당시의 문인들이 여러 작품에서 묘사한 종삼의 모습과 함께 "그곳에 가지 않은 자는 거의 없다. 기성작가, 신인, 문학 지망생을 통틀어서 그곳에 가지 않은 자는 없는 것이다."라는 고은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뻔질나게 종삼에 출입한 그들은 이른바 '종삼동서들'이었다"고 선언한 것이다(손정목, 2005: 19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주요 언론은 필요악, 사회악을 부르짖으며 종삼의 여성들을 조롱하고 규탄했다. 그러나 내로라하는 지식인과 문학인들에게 이곳은 여성혐오적 쾌락을 공유함으로 '사내다움'을 확인하고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던 공간이었던 것이다. 여성혐오는 결국 여성이라는 타자에 대한 공격을 통해 남성성을 확인받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지만, 이를 남성들의 '낭만성'으로 포장해온 것이 바로 '종삼동서들'의 남성연대(male bonding)였던 것이다.

(3) '악의 꽃'은 소탕되고 인근의 땅값은 상승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사찰과 공권력의 담합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던 중, 1968년 1월 보건사회부가 4월부터 전국 11대 도시에 설치된 특정지역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던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의 종로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구상하였다(서울역사박물관, 2013; 2016). 세운상가를 비롯한 근대식 도

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 노른자위 지역에 있는 종삼을 신속히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¹¹⁾ 1968년 9월 26일 서울시는 종로 3가 지역 '사창가' 철거를 결정하고 종로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로3가 일대의 윤락여성 선도위원회를 조직하였다(『경향신문』, 1968.09.27). 같은 날 다른 기사에 의하면 종로3가 사창가 정화계획은 1단계로 “윤락여성일소조치”를 실시하고, 2단계로 150여 동의 무허가 불량건물을 철거하고 보안등과 가로등을 가설하는 등 환경을 정비하여 “모범 주택가”로 개발하는 것이다. 당시 이 지역에는 “853명의 윤락여성과 111명의 포주, 190여 명의 소개자들이 들끓고 있다”고 전한다(『동아일보』, 1968.09.27). 이처럼 당시의 조치는 불과 며칠 사이에 사창가를 철폐하여 윤락여성을 한 번에 없애고(一掃), ‘모범적인 주택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968년 10월 5일 종로 3가 지역 사창가 정화를 위한 조치는 신속히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상황을 기술한 기사(『경향신문』, 1968.10.05)는 10월 5일 새벽 5시에 “경찰기동대원 234명, 종로구청 철거반 236명, 차량 16대가 동원”된 “나비 작전”을 벌여 “종삼 흥등가”가 “완전 철거”되었다고 전한다. 마치 군사작전을 기술하는 듯한 표현을 통해 서울시의 강력한 철거 수행을 표현하고 있다. 이날의 “마지막 소탕으로 종로3가 일대에 남아있던 창녀 72”명이 검거되어 대방동 부녀보호소에 수용됨으로써 이 지역에 있던 250여 호의 1천 4백 명의 창녀가 없어졌다. 주요 일간지의 기사는 공통으로 종삼의 여성들을 공권력의 작전에 의한 소탕의 대상으로 표현하며 결국 다른 곳으로 “추방”되거나(『동아일보』, 1968.09.27)

11) 한 연구는 종3 철폐의 원인으로 당시 종로3가를 방문한 김현옥 서울시장을 몰라본 한 여성이 호객행위를 했던 상황을 들고 있다(손정목, 2005: 199-200). 이 주장은 다른 글에서도 인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종3 철폐의 원인이라기보다 이 미 재개발 사업을 계획했던 서울시장이 본격적으로 철거정책을 추진했던 하나의 우연적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 또 이 사건이 ‘무용담’처럼 전해지는 것은 ‘창녀가 감히 서울시장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에 대해 패쇄죄를 적용하고 싶은 ‘남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라졌다”는 사실을 전하며 종삼의 ‘정화’를 환영하고 있다. 또 인근 복덕방에서 땅값이 며칠 사이에 2배까지 상승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근대의 도시 개발은 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건설회사, 투자자들의 ‘정상적’ 시민 규범과 정치, 경제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오랫동안 그곳에서 생활해온 거주자들의 장소를 허물었다. 대신 땅과 건물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적 보상을 받았으나, 세입자, 고용인, ‘창녀’ 등으로 살아온 하위 주체들은 도시권, 시민권을 알지도 못한 채 다른 곳으로 내몰렸다(이현재, 2008)¹²⁾. 1968년 종삼은 서울시 도시개발 정책에 의해 철거된 대표적인 집결지가 되었다. 특정지역에 대한 전면적 철거를 내세웠던 정부는 종삼에 대한 전격적인 조치와 달리 다른 곳들은 사실상 묵인으로 일관했다.¹³⁾

이처럼 대한민국 ‘사창가의 대명사’로 불리던 종삼은 박정희 정권의 도시개발 정책과 더불어 1968년 10월 5일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서울역사박물관, 2010: 112). 이후 종3의 폐쇄는 박정희 정권의 성매매 근절과 경제개발 수행 의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일본인 관광객이 대거 증가하면서 종삼 지역에는 10여 개의 요정이 겸업형 영업을 하였다. 명월관, 오진암¹⁴⁾, 대하, 청풍 등의 요정 지대가 형성되면서 기생관광의 핵심적인 장소가 되었다(홍성철, 2007: 247). 박정희 정권이 설치한 특정지역이었으나 정책의 변화로 하루아침에 ‘사회

12) 저자는 이 글에서 성매매 공간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을 ‘이성에 중심 가족주의에 기초한 시민’ 보호를 위한 것으로 분석하며, 매춘 지역 종사자들의 도시권을 주장한다.

13) 1967년 창신동 일대가 폐쇄되고 청계7가가 되었으며, 1969-70년 남대문과 서울역 인근의 도동 및 양동 윤락가를 재개발하는 데 그쳤다. 1969년 당시 서울의 특정지역 11곳 중 7개가 유지되고 있었다(홍성철, 2007: 242).

14) 오진암은 종로구 익선동에 있던 한옥 요정으로 1953년 서울시 음식점 1호 업소로 등록했다.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박성철 제2 부수장이 만나 7·4 남북공동성명을 논의한 곳으로도 알려졌다.

악'으로 철폐된 종삼에서, 권력층이 드나들던 요정 지대는 '필요악'의 장소로 용인되며 변창한 것이다.

2) IMF 경제 위기 이후 '종3'을 소환하는 담론들

1990년대에는 88올림픽 등을 전후로 유흥업소가 급속히 팽창하고 성산업의 형태가 다변화했다. 집결지 외의 술집과 다방 등의 '겸업형 성매매'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을 매개로 한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김주희, 2006).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며 중산층 신화가 붕괴되고 성산업으로 진입하는 여성들도 늘어났다. 김대중 정권 시기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2000년 군산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등을 매개로 2004년 9월에는 「성매매 방지법」¹⁵⁾이 제정되었다.

(1) 갈 곳 없는 노인의 성과 성병

사라졌던 종3이 다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이다. 1997년 상반기 탐골공원 천여 명의 노인에게 박카스를 판매하는 '박카스 아줌마'가 처음 소개되었다(『경향신문』, 1997.02.21). 노인의 성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IMF 시대' 노인의 공간으로 파고다공원을 조명하는 기사들을 통해서이다. 사회적으로 '부권 위기 담론'이 등장하면서 '무능력한 직장인'과 '힘없는 가장'의 이미지가 압도했다.¹⁶⁾ 이런 맥락에서 '힘없고 돈 없어 서러운 노인들'이 경제난 속에서 쉼 곳을 찾아 시내 공원을 전전한다는 기사들이 등장했다(『동아일보』, 1998.04.15). 몇 달 후 기사에서는 서울 및 인근 지역에서 하루 평균 5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인들이

15)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16) 1990년대 광고 속에 나타난 남녀 이미지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여준다(한은경, 2000).

몰려드는 파고다공원의 모습을 통해 노인 문제를 부각시켰다(『매일경제』, 1998.10.26). 물론 이때의 노인은 남성 노인을 뜻한다.

2000년이 되면 탑골공원과 ‘기억의 정치’가 결합된 기사들이 보이는데, “3·1운동의 현장 탑골공원이 매매춘 현장을”과 같은 제목을 달고 있다. 기사는 탑골공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매춘을 고발하며 단속과 함께 ‘효과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요청하고 있다(『오마이뉴스』, 2000.02.18). 이와 관련하여 “종묘공원에서 성행하고 있는 매매춘”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는 해당 경찰서의 입장을 전하는 각 기사는 ‘소탕 작전’(『경향신문』, 2001.03.27), 탑골공원에서 ‘추방’(『국민일보』, 2001.03.27)을 넘어 박카스 이쭈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다’고 소개한다(『한겨레』, 2001.03.27). 2000년대 서울 한복판의 ‘성지(聖地)’에 나타나 노인들을 유혹하는 ‘윤락녀’에 대해서 국가는 ‘단속’하여 처벌하고, 언론 매체들은 소탕과 추방, 나아가 전쟁까지 요청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시기 탑골공원 및 종묘공원에 관한 기사들은 ‘노인의 성과 성병’으로 관점이 변화한다. 2000년대 ‘탑골공원’ 및 ‘박카스 이쭈름’을 키워드로 하는 기사들은 ‘노년의 성’에 관한 기사와 중복되면서 60대 이상 남성들의 성(性) 기능 및 성생활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탑골공원에서 하루를 소일하는 남성 노인들 중 ‘박카스 이쭈름’을 통해 “성욕구”를 해결하는 실태를 소개하는 기사(『문화일보』, 2000.08.10)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 속 노인의 성생활’을 다루는 기사들이 이어진다(『한국일보』, 2002.08.08). 주로 비노기과 의사와의 인터뷰나 해외 통계를 전한 기사 외에 국내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도 있다(『한겨레』, 2004.05.26). 탑골공원 이용자와 마포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기사가 강조하는 것은 60% 이상의 노인들이 성생활을 즐기고 있으므로, 노년의 성생활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는 “노인 62% ‘죽어도 좋아’”라는 제목을 통해 노인들의 ‘성욕

의 해소'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경향신문』, 2004.05.26). 이런 논의는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사회적으로 성(性)에 대한 담론이 폭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30년 군부독재 하에서 금기의 대상이 되었던 성문화를 개방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욕구 충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70대 노인의 사랑을 주제로 한 2002년 영화 <죽어도 좋아>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을 형성했다.¹⁷⁾ 그런데 남성 노인의 성욕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새롭지 않다. 남성의 성욕을 '자연적인 것으로 보고' 분출되고 해소되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담론이 노인을 그 대상으로 확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 성욕 해소론이 노인 공경이라는 '전통'과 결합한 21세기 한국형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자 일간지에서는 이전의 유행법과 달리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그리고 알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을 알리면서, '박카스 아줌마'는 자발적 성판매자이므로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경향신문』, 2004.09.23). 방지법은 여성단체의 요구를 기초로 입안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안이 수정, 축소되면서 성매매 피해자로 자신을 입증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박정미, 2011: 380-386)¹⁸⁾. 이에 따라 성구매자, 알선자와 함께 관련된 여성들 또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되었는데, 혼자 다니는 '박카스 아줌마'는 명시적 대상이었다.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한 또 다른 사회적 주제는 '성병'이다. 종묘공원의 노인들에 대한 성병 실태 조사 결과, 약 3%의 감염률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의 원인으로 '박카스 아줌마'를 지목하고 있다(『경향신문』, 2006.11.18).

17) 2002년 12월 개봉된 박진표 감독의 영화로, 실화를 바탕으로 연출되어 주목을 받았다.

18) 2005년 100일 집중단속 기간 중 유형별, 성별 검거 인원에 의하면 성판매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하여 입건하지 않은 비율이 6.8%에 그쳤고 나머지 93.2%가 불구속 입건되었다(박정미, 2011: 393).

또 '종묘 공원은 노인 성병 감염의 온상'이라는 기사에서는, 2007년 5월 29일 실시된 종로구 훈정동 주변의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성병 검진 결과 8.8%가 악성 매독에 양성반응을 보인 사실을 전하며 종묘공원의 150여 명에 달하는 '박카스 이쭈마'의 성매매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서울신문』, 2007.05.30). 2004년 시행된 방지법이 구매자와 판매자, 알선자 모두를 처벌하는 취지를 구체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탑골공원과 종묘공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주범을 오직 '박카스이쭈마'로 지목하고, 남성 노인을 단지 이들의 유혹에 의한 성병 피해자로 보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후자는 '외롭고 불쌍한 노인'이고 전자는 이들에게 불법 성매매를 하도록 유혹하는 '범죄자'로 보는 이런 시선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한국 사회의 이중 규범이다. 박정희 정권이 제정한 윤방법이 40여 년 동안 시행되는 동안 쌍벌죄임에도 불구하고 성관매 여성들만을 단속, 처벌해 왔던 역사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언론의 시각은 '박카스 이쭈마'가 성매매의 주범이자, 방지법의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2007-2010년 사이 '종묘공원 성역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종묘 안팎에서의 성매매 근절에 나섰다. '위험하고 오염된' 박카스 이쭈마를 추방함으로써 '성스러운 공간'의 위상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2) 노인복지와 '여성의 빈곤'

2010년대 종로 3가에 대한 대표적인 기사로 2013년 11월 한 달 동안 종로지역 노인 문화를 연재한 『그 섬, 파고다』를 들 수 있다. 이 글은 기존의 단편적인 기사들과 달리 심층취재를 통해 노년에 이르는 개인의 경험을 담아내고 있다.¹⁹⁾ 전체 20개 주제를 다룬 38개 기사의 절대다수는 종로지역 공원을 이용하는 남성 노인들의 '애환'과 인생 역정을 다루고 있다. 한 기

19) 기사를 모아 2014년 1월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아시아경제신문 특별취재팀, 2014).

사에서는 남성 노인들이 일제 식민지시기에 태어나, 광복과 한국전쟁, 1960-70년대 산업화와 1980-90년대 정치 민주화에 일조한 세대라는 남성 중심의 서사가 이어진다(『아시아경제』, 2013.11.04). 이 세대의 남성들이 해온 사회적 역할을 이와 같은 무비판적인 '성공 신화'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성 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사상한 남성적 '기억의 정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기사 중 3회에 걸쳐 '박카스 아줌마'를 다룬 글을 살펴보자. '박카스 아줌마 400명 활동 ... 주름진 성(性), 은밀한 거래'라는 제목을 단 기사에서는 사진 위에 다시 '빅시리즈⑥ 박카스 아줌마의 치명적인 유혹 <上>'이라는 선정적인 부제를 달았다(『아시아경제』, 2013.11.11.).

〈그림 3〉



자료: 『아시아경제』, 2013.11.11.

그러나 “4일 서울 종로길 어느 작은 노점 옆 간이 의자에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한 할아버지가 다가가 몇 마디를 주고받다가 자양강장제를 건네받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실린 아래의 사진에서 ‘치명적인 유혹’을 읽어내는 쉽지 않다. 평범한 차림의 남성 노인과 가방을 가슴에 안은 채 운동화

를 신고 작은 병을 건네는 여성 노인의 모습일 뿐이다.²⁰⁾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박카스 아줌마들의 “심상찮은 차림새”나 “너스레”를 떠는 행동, 70대 할머니들 사이의 텃새로 인한 다툼, 만남 중의 절도 행위,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성매매 등 ‘충격적인 사실’들을 전달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종로지역 남성 노인들을 ‘잠재적 성구매자’라는 관점으로 환원하지 않고 이전 시기의 사회적 기여와 의미 속에서 조명하고 있는 반면, ‘박카스 아줌마’로 불리는 여성들은 현재의 성매매 활동 그 자체에만 주목하여 ‘선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 2014년 2월 3일 단행본 발간 기념으로 개최된 전시회에 관한 기사에서는 ‘박카스 아줌마’의 문제가 ‘노인 성병’의 문제로 대체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4.02.04). 즉 여성들의 삶에 대한 주목이 아니라 이들이 ‘전염시킨’ 남성 노인들의 성병에 주목하는 것이다. 기사들이 ‘박카스 아줌마’에 주목하여 글을 쓰고 사진을 게재하지만 그들의 삶과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은 거의 없다. 소수의 기사가 이들의 성매매가 노년 빈곤으로 인한 구조적 선택임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끝난다.

이 시기 취재 카메라의 시선은 두 개의 공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에서 종로3가 전철역으로 이동한다. 한 신문은 “지금 종로3가는 ‘박카스 아줌마’로 북적”이라는 기사에서 처음으로 종로3가와 박카스 아줌마를 연결하는 제목을 사용했다(『경향신문』, 2011.10.1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묘 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작업이 시작되어 종묘공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여성들이 종로 3가 전철역 등으로 이동한 것이 배경이다. 2015년에는 영향력 있는 한 방송사가 종로 3가역에 ‘밀착 카메라’를 동원한 취재를 했다(『JTBC』, 2015.02.02). 방송에서 기자는 지하철 보안관이 ‘호객행

20) 단행본에는 자양강장제를 건네받는 남성 노인의 옆모습이 실려 있다(앞의 글, 2014: 155). 당일 기사에서는 손만 남기고 남성의 모습을 삭제하여 ‘보호’하고 있다.

위'를 단속하는 현장에 동행하여, 한 여성이 붙잡히는 장면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다.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했지만, 종로 3가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인상착의를 통해 당사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취재는 방송망을 통해 '성매매 여성'이 공공기관에 의해 체포되고, 사정하며 우는 모습을 증계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이 방송의 효과는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2004년 실시된 방지법의 기본 취지가 아니라, 성매매는 여성들이 주범이므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동의이며, 결국 '오염된 여성'에 대한 혐오이다. 이와 같은 공권력의 입장은 더욱 명확한데, 다음 달 '호객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서울 혜화 경찰서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리고(『한국경제』, 2015.03.14), 종묘공원에서 '박카스 아줌마 무더기 검거'를 전하는 기사가 거의 모든 일간지에 게재되었다(『MBC』, 2015.03.26). 사회적 문제로 '노인 성매매'가 거론되지만 문제 해결은 유일하게 표적이 될 수 있는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귀결되고, 종로 3가 여성 노인들에 대한 '검거 열풍'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박카스 아줌마'에 대한 시선은 일관되게 '범죄와 성병'이라는 프레임 속에 머물고 있다.

이런 시각은 '열린 진보'를 표방하는 시민언론도 예외가 아니다(『오마이뉴스』, 2016.01.24). 『늙은 창녀의 한탄 “누가 이 짓 좋아서 하나”』의 제목을 단 기사는 종로 3가 역 주변에서 만난 70대 여성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글이다. 기사는 제목을 통해 여성을 '늙은 창녀'로 호명하고 서두에서 “떡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로 비유하는 등 선정성을 활용하고 있다. 기사는 만남에 응한 한 여성의 생애 경험을 일부 담고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시골에서 상경했으나 서울역에서 인신매매되어 '창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종3'의 역사를 연결하는 기사는 결국 '종3'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의 “매매춘 DNA”를 환기하고 있다. 16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종3의 성매매 역사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사상한 채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부분(“연산군의 여자들”, “퇴역 궁녀들”, 유곽, 요정 등)만 발췌하여 연결한 기사는 매 시기 다양한 명분으로 하층 계급 여성들을 착취하고 동원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매매춘 책임을 여성들의 “DNA”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1960년대 중3의 상황을 ‘창녀와 수녀’가 공존하던 상황으로 묘사함으로써²¹⁾ 여성을 양분하여 관리하는 ‘통제의 기제(dispositive of regulation)’로 드러내기도 한다.

2016년 9월 서울시 종로구에 ‘시니어 100세 자연치유 센터’를 개설했다는 보도가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6%를 차지하는 종로구에서 맞춤형 복지 시설을 마련한 것이다. 이어서 재혼, 상속 등의 법률상담을 담당하는 노인법률상담센터도 개설할 예정임을 알렸다(『서울신문』, 2016.08.18.). 이는 그동안 언론이 지적해온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노인복지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주기적인 단속과 검거 외에 종로 3가의 ‘박카스 아줌마’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남았다. 이들 여성 노인의 ‘빈곤과 삶의 불안정’이야말로 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다. 그러나 ‘이성애적 정상 가족’을 위협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은 ‘복지’ 혹은 ‘성매매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성매매에 대한 ‘낙인’은 이들의 시민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정당화한다.

(3) 영화 속의 ‘헌신’과 ‘일베 박카스남’의 등장

2016년 개봉한 영화 <죽여주는 여자>²²⁾는 ‘박카스 할머니’의 현실을 주제로 하여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영화에서 ‘박카스 할머니’는 현실의 쾌락과 노년의 죽음을 모두 책임지는 여성으로 재현된다. 할머니를 ‘박카스’가 아닌 한 개인으로 바라보려는 감독의 의도는 할머니에게 남성 노인

21) 종로 3가 전철역 중심의 사창가와 건너편 명동성당을 지칭한 표현이다.

22) <The Bacchus Lady>라는 제목으로 2016년 10월 국제영화제에 출품된 이재용 감독의 영화다.

들의 죽음을 '자발적으로 돕는 역할'을 맡김으로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반복되는 죽음 조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트라우마나 상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할머니'를 전지전능하게 남성의 죽음까지 책임지는 여성으로 격상시킴으로써 '박카스 할머니' 문제는 개인적이고, 여성적인 '헌신'으로 대체된다. 반면 사회나 가족도 책임지지 못하는 남성 노인의 죽음은 '할머니'의 헌신과 배려로 해결된다. 이것은 여성이 '마음먹기에 따라' 고통과 두려움, 착취와 상처의 경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모성 신화'의 다른 버전이다.

영화 속 '신화'와 달리 현실에서는 2018년 7월 23일 "일베 박카스남"이 등장했다(『경향신문』, 2018.07.23). 남초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 74살 박카스 할매 먹고 왔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이 오르면서 해당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이 100여 건 작성된 것이다. 다음 날 전국 일간지에 '일베 박카스' 남의 충격적인 행동을 알리는 기사가 올라왔다(『조선일보』, 2018.07.24; 『서울신문』, 2018.07.24). 얼마 뒤 비슷한 사진을 일베에 올린 40대 남성이 체포되었다(『경향신문』, 2018.08.28). 조사에 의하면 이 남성은 서초구청 직원으로 종로 3가에서 성매수를 하며 촬영한 7장의 사진을 최초로 올렸고, 먼저 체포된 20대 남성은 이 사진 중 4장을 내려 받아 일베 사이트에 올린 것이었다. 40대 남성이 사진과 함께 "X여관 도착 후 ... 이 거저거 요구해도 다 들어 주시고..."와 같이 성매수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여 '충격적'이라는 기사가 뒤를 이었다(『중앙일보』, 2018.08.30).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서 '막장'(『헤럴드경제』, 2018.07.24) 또는 '패륜'(『서울경제』, 2018.07.24)으로 보도되고, 강력한 사회적 반응을 일으킨 것은 소위 '젊은' 남성이 '할머니'의 성 매수를 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것을 온라인 사이트에 공유하며 '할머니의 성'을 조롱하는 혐오 행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3'이 단지 노인 성매매의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무원인 40대의 남성이 '이거저거'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로 '중3'을 이용했다. '싼값'에 마음대로 성적 쾌감을 충족할 수 있는 곳으로 중3이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3이 '노인들의 예외적 성매매 공간'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나아가 '박카스 할머니'가 더이상 중3이라는 오프라인 장소에 영토화된 것이 아니라, 쉽게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되고 2차, 3차의 혐오 놀이에 이용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이다. '값이 없는 노동력과 최하의 섹슈얼리티'로 평가되는 노인 여성의 '몸'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남성들의 혐오 놀이에 가장 '순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 사건은 2018년 당시 여성들에 대한 '불법 촬영물 게시' 문제와 연동하여 해시태그가 번지고, 청와대에 '국가와 경찰은 일베에 할머니 나체 사진을 무단 유포한 남자를 체포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제기되었다(『서울경제』, 2018.07.24). '일베 박카스남'에 대해 여성주의 커뮤니티의 하나인 위마드(womad)에 '죽이고 친국 갈 것'이라는 '테러' 의사와 흥기가 게시되면서 일베와 위마드의 대리전으로 보도되기도 했다(『한국경제』, 2018.07.24). 즉 일베와 위마드가 여혐과 남혐을 조장한다는 양비론적 기사들이 등장하여 '일베 박카스남' 사건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주목할 점은 40대 남성 체포 뒤 언론에서 '박카스 할매 피온 회원이 애국자'라거나, '그 나이 먹고 성매매한 여자도 잘한 거 없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간다'는 일베의 반응을 단순 보도한 것이다(『한국경제』, 2018.08.31). 그러나 '박카스 할머니'에 대한 후속 기사는 이어지지 않았다.²³⁾ 유일하게 한 매체에서 멸시를 받으며 안전망 없는 생활을 하는 '박카스 할머니' 문제를 소개하고,

23) 기사에 의하면 최초 게시자가 밝혀진 날 위마드에는 "일베 박카스남 최초유포자-서초구청 46세 남성"라는 제목으로 '서초구청 남성'과 '박카스남'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게시되었다. 이처럼 당시 위마드의 주요 초점은 '일베 남성'에 대한 응징에 맞춰져 있다.

관련 단체와의 인터뷰를 신는 것에 그쳤다(『한국일보』, 2018.09.06).²⁴⁾ 당시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폭력을 비판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활성화되었고(이나영, 2016), 2018년 '미투 운동'으로 사회 곳곳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반대하는 운동이 조직화 되고 있었다. 어느 때보다 비판적으로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문화가 조명되었으나, 사회운동 내에서도 불법 촬영한 당사자와 이것을 게시한 '일베'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박카스 아줌마'의 존재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성폭력은 사회운동의 뜨거운 주제였지만, '박카스 아줌마'는 공권력이 단속할 성매매 사건으로 남겨졌다.

4. 마무리: 국가의 동원과 남성 욕망의 대상이 된 빈곤 여성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주요 언론이 시대별 성매매 정책의 변화 속에서 종로3가 지역 성매매 공간을 어떻게 재현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일간지를 통해 형성된 종3에 대한 담론은 시대를 달리하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혐오 발화와 사회적 추방을 토대로 하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일제의 공창제가 폐지되었지만, 전쟁에 참여한 미군과 국군을 위해 위안부가 부활했던 1950년대에 종삼은 '인육시장'으로 묘사되었다. 이곳을 이용한 남성들은 비록 '탕아'이지만 사회의 일군으로 정의되었으나, 여성들은 이들을 유혹해 '병'들게 하는 오염된 '몸덩이'였다. 윤방

24)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전 혜화경찰서 대학로 파출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생계 보장과 자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소개되었다.

법이 제정된 1960년대의 종3은 거대한 사창이 목인된 ‘특정지역’이었다. 국가에 의해 성매매 관리지역이 된 종삼은 ‘필요악’으로, 여성들은 ‘타락한 자’로 정의되었고, 증가하는 사창굴의 배후로 여겨졌다. 1950년대와 비교하여 종삼의 여성들을 ‘몸덩이’가 아닌 오염된 타자로 보는 관점이 두드러지는데, 전후 미국의 성병관리제도 등을 통해 서구의 성 본질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여성혐오 문화가 확산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²⁵⁾ 1990년대 이후 IMF 경제 위기 속에 ‘불쌍한 노인 남성의 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복지 관점에서 ‘박카스 아줌마’는 성병을 옮기는 위험한 존재로 조명되었다. 2000년대에는 노인복지 센터가 마련되고 성병 및 성생활 상담 등이 이루어지지만, ‘박카스 아줌마’는 ‘매춘 DNA를 가진 자’들로 추방의 대상일 뿐이다. 노인복지 담론에서 ‘박카스 아줌마’의 빈곤과 존재 위기는 제외되었다. 전면적 금지주의를 표방한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거리 성매매’ 형태를 띤 ‘박카스 아줌마’는 공권력의 단속에서 쉬운 표적이 되었으며, 언론은 이를 주기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오염된 존재’의 고질성과 ‘성매매 금지’를 역설하고 있다.

둘째, 문화지리의 관점에서 1950-60년대 20-30대 여성들의 성매매 집결지였던 종삼은, 21세기 서울에서 50-70대 노년 여성들의 ‘거리 매춘’의 장소로 변화했다. 전후의 종삼은 서울 중하층 남성들의 상실감과 문화적 우울을 위로받던 ‘특정지역’이었다. 이곳의 여성들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기반으로 ‘종삼동서들’이라는 남성연대를 가능하게 했던 ‘기억의 장소’이다. 이곳에서의 ‘위안’을 자양분으로 생산된 문학 작품들은 거리낌 없이 종삼을 묘사하고 ‘낭만화’함으로써 사회의 감성 속에 여성 혐오를 직조했다. 종로 한복판에서 번성기를 구가하던 종삼은 박정희 정권의 서울 도시개발이

25)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에 ‘모던문화’가 등장하며, 자연화된 성(性) 관념이 소개되었다. 1935년 한 잡지에서 마소치즘(masochism)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김진송, 2003: 131). 해방 이후 연합군의 ‘원조문화’ 속에서 더욱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본격화되던 1968년 전격적으로 폐쇄되었다. 종삼에 대한 '소탕 작전'이 전국에 보도됨으로써 정부의 '윤락행위 방지'라는 '국가재건'의 의지를 과시하는 상징적 장소가 되었다. 1970년대 이곳은 권력층의 요정 지대로 변모했으나,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다. 1990년대 말부터 '거리 매춘'이 등장한 종3은 언론이 재현하는 '외로운 남성 노인들의 문화 공간'이 아니다. 과거의 표현을 빌자면 '종삼동서들'의 귀환이다. 종3은 전후의 '인육시장'과 '특정지역'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남성 집단이 노년에 이르러 '저렴하게' 남성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의 실현이다. 남성적 존재로서 지녔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우위가 사라진 노년기에 유일하게 가능한 것, 즉 여성의 몸을 살 수 있는 젠더 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이다.

셋째, 2004년 성매매 방지법 제정 이후 성매매 정책 대상에서도 '노년 여성들'은 배제되었다. 20-30대의 현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피해자 구제와 보호 지원 정책에서 이들은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단속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희영·강혜경, 2019). 정책 수행자들은 성매매는 '젊은 여성의 몸'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박카스 아줌마는 소수의 예외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박카스 아줌마'는 종3에서 생활하는 200-300여 명의 여성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환기하는 전국의 '다람쥐 아줌마', '커피 아줌마' 등에 대한 상징이다.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선 위에 형성된 장소들, 전국의 역전과 뒷골목, 고속도로 정체 지대, 등산로 등에서 '박카스 아줌마'는 이동하며 흩어지고, 돌아와 다시 만들어진다. 일상 속의 여성 혐오와 성적 대상화가 구조화된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반세기를 넘어 폐쇄와 단속, 처벌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종3'은 성매매 정책의 실패를 역설적으로 지시하는 은유이다. 또 경찰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이 사회에 구조화된 성매매는 묵인하며, 여성만을 통제해 온 정책의 결과 '박카스 아줌마'는 어느 곳에서나 등장하게 된 것이다. 생애 한 시기 빈곤, 가족해체, 질병, 인신매매, 폭력 등을 배경으로

성매매와 연관된 여성들을 국가와 사회가 비난하고 조롱하며 사회 밖으로 추방한 결과이다.

넷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카스 이즘마'에 대한 사회적 침묵과 회피가 2018년 재발화(reboot)된 여성주의 운동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는 기제는 무엇일까? 2018년 '박카스남 사건'에 대해 '응징'과 처벌을 요구하는 운동이 있었으나, '박카스 이즘마'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요구는 제기되지 않았다. 이들을 '타락하고 나이 든 불쌍한 여성', '단속과 처벌로도 구제 불가능한 여성'으로 설파해온 언론의 '매춘 DNA 담론'은 '타락한 여성들'에 대한 사회의 잠재적 공포를 조장하고 '정숙한' 여성들을 옹호하고 규범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결국, 여성들 스스로 '일반여성'과 '성매매 여성'을 구분하고, 자신을 후자로부터 보호하고자 할 때 이중 규범을 통해 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젠더 정치는 실현된다.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말 '경제 위기'의 과정에서 성매매에 진입한 중년 여성들이나 평생 성매매 현장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의 사례는 집과 가정의 보호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몰락과 타락을 전시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 여성주의 운동과 '성매매 의제'가 분리된 배경이기도 하다.

다섯째, '박카스 남' 사건은 사회체에 녹아있는 여성에 대한 혐오문화가 온라인커뮤니티 속 이미지와 글로 재현된 사례이다. 디지털 이전 세대가 립살롱, 요정 혹은 선술집에서 즉흥적 언술로 내뱉고 상상하던 그 문화를 디지털 매체를 전유한 세대가 현재형의 여성 혐오 방식, 즉 '일베 스타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싼 섹슈얼리티'인 '박카스 이즘마'는 쉽고 거리낌 없이 혐오하고 조롱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박카스 이즘마'는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 성매매 유형의 '마지막 고리'이며, 정책 방지 및 실패의 적나라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누구든 접근 가능한, 보호되지 못하는 섹슈얼리티의 존재는 언제나 가능한 여성 혐오 행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여섯째, 지금까지 살펴본 '박카스 아줌마'에 대한 담론과 정책의 사회적 효과는 무엇일까? 권력이 성(매매)의 만연을 두려워하여 단속과 폐쇄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매개로 권력이 생산되는 것이라는 푸코의 지적을 상기한다면 '박카스 아줌마'에 대한 비난과 단속, 처벌은 공권력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여성혐오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가가 성매매금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경찰력이 성매매의 상징인 집결지를 폐쇄하고, 거리 매춘인 '박카스 아줌마'를 단속하고 처벌한다. '박카스 아줌마'는 다양한 성매매 유형 중 '마지막 고리'로 가장 취약한 사회 집단 중 하나이다. 노년에 이르러 집결지나 산업형 성매매 공간에 머물 수 없는 여성들이 '거리 호객'을 통해 성매매를 한다는 점에서 '마지막 고리'이다. 이들을 '자발적 성매매자'로 보고 단속, 처벌하는 것은 구조적 성산업을 해체하지 못하는 공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이다. 노골적으로 거래되는 (여)성은 처벌됨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체 속에 깃든 젠더화된 권력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삶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한 빈곤 여성을 추방함으로써 가부장적 성규범을 유지하고, 일상의 여성혐오가 세대를 넘어 재조직되고 있다. 다른 한편 시민권을 갖지 못한 '박카스 아줌마'는 사회가 양산한 '비체(非體 object)'로²⁶⁾,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장소와 시간을 비껴가며 생겨난 암묵적 저항의 양태들이다. '값없는 노동력이자 가장 싼 섹슈얼리티'에 대한 호명인 '박카스 아줌마'는 권력의 틈이 형성된 곳을 찾아 이동한다.

26) 여러 페미니스트가 사용한 이 개념을 다음 글에서 차용하였다(이현재, 2016: 34-37). 이때 비체는 순수하다고 여겨지는 경계를 넘나들며 흐르는 것으로,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다. 가부장제 역사에서 여성들은 알 수 없는 '비체'로 여겨지며, 혐오의 대상이 되어왔다.

참고문헌

- 김귀옥(2019),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서울: 도서출판선인.
- 김애령(2016), “복합적 장소 감정과 애도 - 용산 성매매집결지 철거와 '판도라 사진 프로젝트'”, 『페미니즘연구』, 제16권 1호, 149-183쪽.
- 김주희(2006), “성산업 공간인 티켓 영업 다방 내 십대여성의 '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진송(2003), 『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 - 현대성의 형성』, 서울: 현실문화연구.
- 맥도웰, 린다(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McDowell, Linda(1999), *Gender, Identity &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Cambridge: Polity Press.
- 박정미(2011),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목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보건사회부(1987), 『부녀행정 40년사』, 과천: 보건사회부.
- 서울역사박물관(2010), 『종로엘레지』,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_____ (2013), 『돌격 건설! 김현옥 시장의 서울 I. 1966-1967』,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손정목(2005),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1』, 파주: 한울.
- 신진영(2016), “성매매 집결지의 장소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대구 '자갈마당'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아시아경제신문 특별취재팀(2014), 『그 섬, 파고다.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서울: 황금사자.
- 앤더슨, 존(2013), 『문화·장소·흔적. 문화지리로 세상읽기』, 이영민·이종희 옮김, 파주: 한울아카데미, Anderson, Jon(2010), *Understanding Cultural*

- Geography: Places and Trac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오현주·옥은실(2016), “종로3가, 우리가 몰랐던 서울의 ‘섬’: 노인들의 아지트 만들기”, 『문화과학』 제86권, 405-434쪽.
- 웁스, 제프리(1997),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서동진·채규형 옮김, 서울: 현실문화연구, Weeks, Jeffrey(1986), *Sexualit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 Ltd.
- 이나영(2016),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문화와사회』, 제22권, 147-186쪽.
- 이임하(2004),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울: 서해문집.
- 이현재(2008), “매춘의 도시지리학과 공간생산을 위한 투쟁”, 『사회이론』 제33권, 111-133쪽.
- _____(2016), 『여성혐오 그 후, 우리가 만난 비체들』, 서울: 들녘.
- 이호선(2011),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 연구: ‘박카스 아줌마’ 실태 조사 및 노인 상담적 접근”, 『한국노년학』 제31권 3호, 489-503쪽.
- _____(2012),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 연구(2): ‘박카스 아줌마’ 실태조사 2”, 『한국노년학』 제32권 2호, 501-512쪽.
- _____(2013), “박카스아줌마 대상 성구매자 남성노인의 성구매 동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4권 2호, 215-239쪽.
- _____(2014), “한국 남성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 중년 여성”, 『대한성학회지』 제1권 2호, 36-43쪽.
- 이희영(2014), “생활세계로서의 용산: 사진 분석을 통해서 본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의 장소 경험과 의미”, 『한국사회학』 제48권 1호, 265-297쪽.
- 이희영·강혜경(2019), 「성매매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 세대적 특성과 공간의 분절」, 서울: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
- 장동철(1967), “윤락여성의 실태에 관한 소고: 종로구와 영등포구의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권, 122-131쪽.
- 전종한(2009), “도시 뒷골목의 ‘장소 기억’: 종로 피맛골의 사례”,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6호, 779-796쪽.

- 콘보이, 케티 외(2001),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경하 외 편역, 파주: 한울, Conboy, Katie et al.(1997), *Writing on the Body. Female Embodiment and Feminist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푸코, 미셸(1993), 『담론의 질서』, 이정우 번역, 서울: 새길, Foucault, Michel (1971), *L'ordre du discours*, Paris: Gallimard.
- _____ (2004), 『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 이규현 옮김, 서울: 나남출판, Foucault, Michel(1976), *Historie de la sexualité. Tome 1 La 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 한은경(2000), “광고에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 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4권 2호, 243-277쪽.
- 홍성철(2007), 『유평의 역사, 아미산하 유평에서 파주 용주골까지, 집창촌 100년의 역사』, 서울: 페이퍼로드.
- Breckner, R.(2010), *Sozialtheorie des Bildes*, Bielefeld: Transcript.
- Scott, J.(1999),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Voelter, B. and G. Rosenthal(2005), “Diskursanalysen”, in *Interpretative Sozialforschung*, ed. G. Rosenthal, Gabriele, Weinheim and Muenchen: Juventa, pp. 215-221.

<신문기사·잡지·보도자료>

- 『경향신문』, 1957.08.04, “종삼이란 곳”.
- _____, 1968.09.27, “종3사창가 철거계획 따라 출입남자 이름 공개”.
- _____, 1968.10.05, “종삼 흥등가 완전 철거”.
- _____, 1997.02.21, “국내 매춘 변천사/ ‘기생 밀매음’서 ‘출퇴근 직업’으로”.
- _____, 2001.03.27, “종묘, 탐골공원 노인윤락 ‘박카스 아줌마’ 소탕작전”.
- _____, 2004.05.26, “늙으면 ‘사랑’도 못한다고? - 노인 62% ‘죽어도 좋아”.
- _____, 2004.09.23, “오늘부터 시행되는 사회관련법 Q&A”.

- _____, 2006.11.18, “종묘공원 노인들 ‘위험한 性’, 성매매 성행 … 100명 중 3명 매독 감염 충격”.
- _____, 2011.10.10, “지금 종로3가는 ‘박카스 아줌마’로 북적”.
- _____, 2018.07.23, “일베에 ‘노년 여성 성매수’ 사진 올라와 논란 … 경찰 “신고 접수돼””.
- _____, 2018.08.28, ““음란사이트 회원등급 올리려고…” 노인 나체사진 유포한 40대”.
- 『국민일보』, 2001.03.27, “[여울목] ‘박카스 아줌마’ 탐골공원서 추방한다”.
- 『동아일보』, 1968.09.27, “그늘진 사창가 없어진다”.
- _____, 1998.04.15, “IMF시대 노인들 갈 곳이라곤 공원뿐”.
- 『매일경제』, 1998.10.26, “노인들 갈 곳이 없다”.
- 『문화일보』, 2000.08.10, “세상 옛보기/탐골공원 박카스 아줌마”.
- 『서울경제』, 2018.07.24, ““일베 박카스남’ 인증, 2년 전에도 똑같은 일?”.
- _____, 2018.07.24, “일베 박카스남 ‘패륜’에 위마드 ‘살인예고’, 인터넷 전쟁 초읽기”.
- _____, 2018.07.24, ““일베 박카스남 처벌해주세요! 위마드보다 나쁜 짓은 선배” 국민청원 글 등장”.
- 『서울신문』, 2007.05.30, “[현장행정] 종로구 노인 성병 예방”.
- _____, 2016.08.18, “100세까지 즐길 수 있는 노인천국, 서울 종로”.
- _____, 2018.07.24, “일베 박카스남, 노인 성매수 후 알몸사진 유포 논란”.
- 『아시아경제』, 2013.11.04, “시간이 멈춘 그곳, 차라리 섬이었어라”.
- _____, 2013.11.11, “박카스 아줌마 400명 활동 … 주름진 性, 은밀한 거래”.
- _____, 2014.02.04, “미주 선 노인과 청년 … ‘미래의 나’를 만났습니다”.
- 『오마이뉴스』, 2000.02.18, “3·1운동의 현장 탐골공원이 매매춘 현장”.
- _____, 2016.01.24, “늙은 창녀의 한판, 누가 이 짓 좋아서 하나”.
- 『조선일보』, 1965.06.15, “넓혀가는 사창가, 선도구역 내외에 모두 1만여 명, 적선 뚫고 주택가로, 생활고보다 습성 때문에 못 벗어나”.

_____, 2018.07.24,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 나체사진 올린 ‘일베 박카스남’ 수사”.

『주간조선』, 1969.12.07, “홍등 꺼진 ‘종삼’ 철거령 내린지 1년...그 뒤”.

『중앙일보』, 2018.08.30, “‘일베 박카스남’ 사진 최초 촬영자는 서초구청 직원”.

『한겨레』, 2001.03.27, “박카스 이즘마를 잡아라 / 탐골, 종묘공원 노인매춘 성행”.

_____, 2004.05.26, “노인 옆에 여섯 성생활 즐겨”.

『한국경제』, 2015.03.14, “정용근 서울 해화경찰서장 종묘에 강력팀 배치... ‘박카스 이즘마’ 호객행위 뿌리 뽑을 것”.

_____, 2018.07.24, “‘일베 박카스남’에 분노한 위마드 “죽이고 천국 갈 것” 살인 예고”.

_____, 2018.08.31, “일베 박카스남, 일베 반응은? 사진 올린 건 잘못이지만 범죄 아니야”.

『한국일보』, 2002.08.08, “공론화하는 ‘노년의 성’ /섹스엔 정년 없이 ... ‘주책’ 취급 곤란”.

_____, 2018.09.06, “무관심·멀시에 ... 안전망 없는 ‘박카스 할머니’”.

『헤럴드 경제』, 2018.07.24, “일베 회원도 분노한 ‘일베 박카스남’ 막장 스토리 ... 경찰 수사 접수”.

『JTBC』, 2015.02.02, “폭행, 성매매까지 ... 무법지대가 된 종로3가역”.

『MBC』, 2015.03.26, “경찰, 종묘공원 ‘박카스 이즘마’ 집중단속”.

〈영상 자료〉

박진표(2002), 〈죽어도 좋아〉, 67분, (주)메이필름, 2002.12.06 개봉.

이재용(2016), 〈죽여주는 여자〉, 111분, 한국영화아카데미, 2016.10.06 개봉.

이혁상(2011), 〈종로의 기적〉, 115분, 연분홍치마, 2011.06.02 개봉.

(논문 투고일: 2020.05.13, 심사 확정일: 2020.05.29, 게재 확정일: 2020.06.16)

〈Abstract〉

'Jong3' as a Metaphor and Migrating 'Aunt Bacchus':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Space in Jongno 3ga, Seoul

Yi, Hee Young*

This study analyzes discourses on “Jongno 3-ga,” known as an old prostitution area in Seoul, and explores its social significa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social discourses surrounding “Jongno 3-ga,” called Jong3 from the 1950s to the present, have mostly been constructed on the basis of ‘essentialized’ hate utterances and the social expulsion of prostitutes. Jongsam in the 1950s and 1960s changed from a “Special District” of prostitution in women to Jong3, where street prostitution of women in their 1950s and 1970s continued after the 1990s. ‘Jong3’ is now an area in which male groups, called “Husbands of women in Jongsam,” who shared the pleasure of misogyny in post-war Jongsam, are exerting gender power in their old age.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n Sex Trade 2004, “Aunt Bacchus” has become the subject of official crackdowns and punishments. In addition, prostitutes have been out of the interest of the women's movement, which was reignited in 2018. And to conclude, Jong3 is a place that indicates the failure of governmental and social prostitution policies in Korea over recent decades.

Key words: Jongno 3-ga, misogyny, discourse analysis, Aunt Bacchus, Prostitution policy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and Center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y, Daegu University.